

추 념 사

한울님 감응하옵소서!

오늘은 수운대신사께서 순도하신 지 제152주년이 되는 순도기념일입니다. 대신사님과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상사님을 비롯하여 창도 이래 포덕천하하고 광제창생의 대도를 체행천도하시다가 순도순국하신 선열 동덕 모두 저희들의 심령 속에 출세하시어 무궁장생하시면서 후천 개혁의 길을 소소히 밝혀 주시옵기를 심고합니다.

선천의 명이 그 운을 다하고 후천 운이 채 밝아오기 전에, 수운대신사께서는 한울님의 명교를 받들어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온 세상에 가득 찬 악질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건질 무극대도를 창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금천지의 운수와 인심풍속의 유형을 깨닫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은 대신사님을 좌도난정으로 모함하여 참형에 처했습니다.

그날 이후 해월신사께서는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한울님의 세상에 덕을 펴기 위하여 신명을 다하였습니다. 해월신사 시대 36년 동안 신미년(1871) 교조신원운동, 임진년(1892)과 계사년(1893)의 교조신원운동, 그리고 갑오년(1894)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에서 또다시 수십만 순도 선열이 후천개혁의 제단에 신명을 바쳤습니다.

의암성사와 춘암상사님 시대에도 갑진개화운동과 3.1운동 등에서 수십만 선열 동덕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개혁의 대장정에서 순도하시고, 수백만의 천도교인들이 만세운동과 자주자강의 독립운동, 문화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단 이후에는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흐름으로 동학의 기운은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창도 이래 수백만 선열 동덕들이 순도하였음에도, 오늘 우리는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대의를 앞세우는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위하여 명을 바꾸신 순도의 역사는 눈앞의 대의보다 깊고 높고 넓은 경지에서 후천 운수가 갈아듭과 우리가 이신환성하고 성령출세하여 덕업장생하는 이치를 가르쳐준다고 믿습니다.

수운 대신사님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스승님과 선열들께서는 육신의 죽음으로써 후천 개혁의 운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의 정기를 살리고, 정의와 평등평화의 새 시대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악질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국운수를 먼저하고 그로부터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각자위심은 날마다 치성하고 동귀일체는 날로 어지러워졌습니다.

무극대도는 이민족 침략의 총구 앞에서 상처받고 침탈당하였으며, 분단의 상처 속에서 제 빛을 발휘하지 못한 채 역사의 고비를 지나 왔습니다. 인심은 금수의 무리와 가까워지고, 정의와 도덕은 지난 시대의 유물처럼 천대받는, 불순천리 불고천명의 세태가 천심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생명은 생기를 잃고, 도의 기운은 잠잠해졌습니다.

분단 70년을 넘어선 오늘날까지 통일의 길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화해의 광장은 펼쳐졌다가 사라지기를 거듭합니다. 더욱이 지금의 한반도 위에는 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무력 충돌의 어두운 기운이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현실에서도 오직 천도교인들은 우리도의 운수로 말미암아 봄이 움을 믿습니다.

보국안민의 계책이 간절해짐에 “삼칠 자를 그려내니 세간 악마 다 도망” 한다고 하신 뜻이 더욱 새롭습니다. 용천검 날랜 칼로 막힌 언로를 뚫어 참에 돌아가게 하며, 만국병마가 일으키는 어지러운 먼지들을 한울복소리로 소제할 것입니다. 기울어진 자리를 바르게 하며 흐린 강물을 맑게 하여 돌아오는 새봄의 운을 밝고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수운대신사 순도 추모식 및 순도선열 합동 위령식을 올리면서 다시금 수운대신사께서 해월신사에게 고비원주(高飛遠走)의 가르침을 내린 뜻을 깊이 되새깁니다. 높이 날듯이 도의 뜻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먼 곳에까지 나아가 도의 기운을 펴고 행하라 하신 것은 그 도 안에서 스승님께서는 장생하고 출세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스승님과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어둠이 짙어지고 아득할수록 동녘에 떠오르는 해를 간절히 바라듯이 동학 천도의 길에서 새 희망을 찾는 발길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죽임의 시대에 살림의 도인 동학을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요 자연한 이치입니다. 치성한 것은 반드시 쇠하게 되고, 쇠함이 지극하면 반드시 성세가 돌아오듯이, 천도교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 분명한 천덕사은입니다.

노래하기를 “용담의 물이 흘러 네 바다의 근원이요, 구미산에 봄이 오니 온 세상이 꽃이로다.” 하셨습니다. 스승님의 마음이 있어 물이 흐르고, 스승님의 가르침이 있어 구미산의 봄이 오만년 토록 무궁할 줄을 알겠습니다. 오늘의 추모식과 위령식은 마른기둥 같은 겨울나무에서 새 생명의 봄을 예감하고 예비하는 해안과 용기를 기르는 기틀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한울님을 찾는 까닭은 근본을 회고하고 참에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때를 만나 성운이 돌아오고, 우리 교단이 성세를 타고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은 자연한 이치요, 선열들의 음덕의 결실입니다. 한울님의 은덕으로 천도에 입문한 우리는 일용행사에 경천명 순천리하며 이때를 맞이합니다.

해월신사께서 “우리 도는 삼절운에 창립하였으므로 나라와 백성이 다 이 삼절운을 면치 못하리라. 우리 도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장차 우리나라 운수를 좋게 할 것이라.” 하신 것도 그러한 이치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스승님과 선열들의 순도하신 삼절운을 넘어서서 아국운수를 밝게 하고 그 덕을 넓혀서 온 세상의 개혁을 맞이할 것입니다.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올해 우리는 중앙총부와 전국 교구의 교역자의 면모를 일신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름과 얼굴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이 새로운 것이요, 사람이 바뀐다 하여 사사상수의 법통이 어기는 것은 아니니 쉬지 않는 한울의 도를 따라 정성을 다하고, 한울과 사람과 물건을 공경하오며, 한울님의 감응으로 만사여의할 것을 믿어 나갈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의 제정과 기념사업,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운동과 시천주복지재단 사업은 무극대도의 내일을 기약하는 제2현도운동의 기틀입니다. 오늘의 천도교가 후천개벽의 새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마당포덕의 장으로 돌아오는 비단길이 되도록 뜻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남쪽별이 등글게 차고 북쪽 하수가 돌아오면 대도가 한울같이 집회를 벗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우리 사이에서 타오르는 원망과 증오의 불길을 심화기화로 다스리고, 스승님께서 순도하심으로 무극대도를 살리고 후천운수를 보존하신 그 뜻과 역사를 이어서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길로만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심고합니다.

한울님,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순도 순국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포덕 157년 3월 10일

천도교 교령 박남수 심고